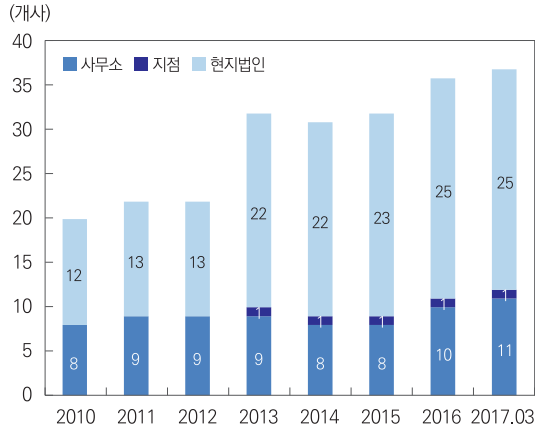


해외진출 및 국내진입 자산운용사의 현황 및 특징

- 2017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건수 및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 건수는 각각 37개와 27개를 기록하며,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입 건수가 증가세를 유지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은 일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해외 진출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통한 수익실현은 뚜렷하지 않음
 - 한편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자산운용사는 전체 펀드 순자산규모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기간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적자 자산운용사 비중은 41.4%로 집계
 - 최근 해외투자펀드의 성장과 주요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의해 향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영업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2017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건수 및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 건수는 각각 37개와 27개를 기록하며, 국내 및 해외 자산운용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세를 유지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건수는 2010년말 20개에서 2016년말 36개로 16개(80.0%)증가하였으며, 동기간 해외진출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는 9개사에서 14개사로 확대
 - 연도별 해외진출 자산운용사 수: 9개사(2010년), 11개사(2012년), 12개사(2014년), 14개사(2016년)
 - 2017년 3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15개사는 중국, 미국 등 11개 국가에 사무소 및 지점을 개설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유형별로는 현지법인 형태의 해외진출이 6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과거에는 홍콩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추세
 - 해외진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9개, 미국 8개, 홍콩·베트남 4개의 순이며,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영국 등으로 집계
 -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 건수는 2010년말 22개에서 2016년말 26개로 소폭 증가(18.2%)하였으며, 해외 자산운용사의 90% 이상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
 - 국가별로는 미국과 영국의 자산운용사 진입이 가장 활발하며 이외에도 일본, 호주, 홍콩 등으로 집계
 - 2017년 3월말 기준 11개국의 27개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진입하였으며 이 중 현지법인과 사무소는 각각 24개와 3개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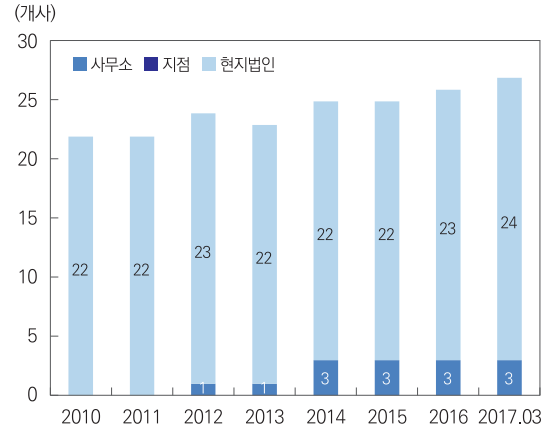
- 24개사 중 3개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하였고, 일부 자산운용사의 경우 공모펀드 중 부동산 및 특별자산을 대상으로 인가·등록한 것으로 조사¹⁾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은 일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해외진출이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통한 수익실현은 뚜렷하지 않음

- 2017년 3월말 기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자산운용사 15개사 중 현지법인을 설립한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총 7개사이며, 나머지 자산운용사는 사무소 및 지점 형태로 진출
 -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3년 홍콩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국가에 11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은 중국과 미국에 각각 3개, 2개의 현지법인을 설립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해외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펀드 중 해외 현지고객의 투자금액은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 국내 등록 해외투자펀드의 운용이 주요 목적²⁾
- 한편 해외진출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 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실현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임
 - 미래에셋자산운용의 7개사³⁾ 해외 현지법인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살펴본 결과, 흑자를 보인 현지법인의 수가 더 많았으나 일부 해외법인의 손실로 인해 최근 3년간 전체 해외 현지법인은 순손실을 기록
 - 이 외에도 현재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수익 확보는 다소 부침이 있어 보이나 이는 아직까지 해외 시장에서의 활동기간이 길지 않으며 해외진출에 따른 초기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임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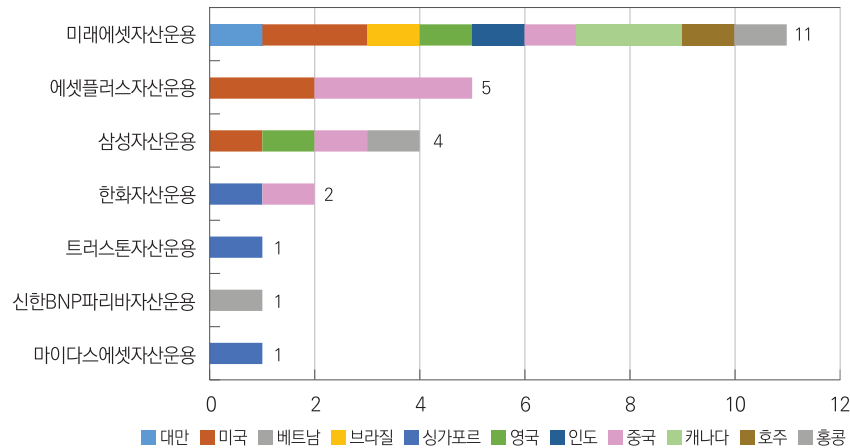
1) 금융감독원의 2017년 6월말 기준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인가·등록 종합표'를 바탕으로 집계

2) 한국증권학회, 2015.5.21, 자산운용업 해외진출 필요성과 방향, 증권사랑방 발표자료.

3) 미래에셋자산운용사의 해외 현지법인 중 최근 3년간 비교 가능한 인도, 영국, 브라질, 대만, 캐나다, 홍콩,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 해외 현지법인의 수는 3개사, 2개사, 4개사임

4) 미래에셋자산운용 외에도 한화자산운용의 싱가포르·중국 현지법인, 삼성자산운용의 홍콩·뉴욕·런던 현지법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미국 현지법인의 재무구조를 살펴보았으며,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기록

자산운용사별 해외 현지법인 현황(2017.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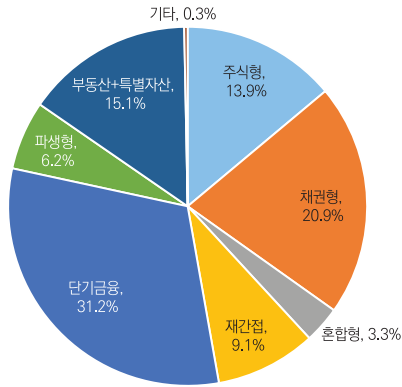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한편 2017년 3월말 기준 국내진입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순자산규모는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이익은 기간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적자 자산운용사 비중은 41.4%로 집계
 - 동기간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순자산규모는 58.1조원이며, 펀드 유형별로는 단기금융 31.2%, 채권형 20.9%, 부동산·특별자산 15.1% 등의 순⁵⁾
 - 국내진입 해외 자산운용사 22개사 중 6개사(27.2%)는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를 중심으로 사모펀드만을 운용
 - 2017년 1분기 해외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은 121.6억원이며, 현지법인 24개사 중 10개사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자산운용사 비중은 41.7%를 나타냄
 - 적자를 보인 자산운용사 중 일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여러 분기동안 적자가 지속 되어 손실이 누적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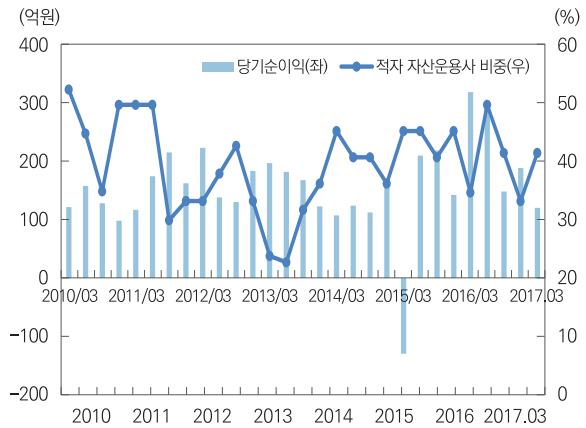
5) 2017년 3월말 기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자산운용사의 현지법인은 총 24개사 중 금융투자협회의 회사별 펀드 설정규모 데이터가 있는 22개사를 대상으로 집계

국내진입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유형별 순자산 비중 (2017.03)



주 : 1) 기타는 혼합자산과 PEF를 포함
 2) 순자산총액 기준, 공·사모 합계
 자료: 금융투자협회

국내진입 해외 자산운용사의 수익 현황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 해외투자펀드의 성장과 주요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해 향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영업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7년 6월말 기준 해외투자펀드 순자산규모는 109.8조원으로 국내 전체펀드 중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해외투자펀드의 규모 및 비중 모두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해외투자펀드 순자산규모(조원): 57.3(2010년), 51.4(2012년), 60.6(2014년), 90.9(2016년)
 - 전체펀드대비 해외투자펀드 비중(%): 17.8(2010년), 16.6(2012년), 16.2(2014년), 19.5(2016년)
-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말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인도 등 아시아 및 여러 글로벌 지역에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가 설정
 - 2017년 7월말 기준 약 1.9조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매달 펀드 가입 규모가 증가세를 유지
- 수익률 제고 및 위험분산을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운용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의 위탁운용사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보임
 - 2017년 6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운용 규모 중 해외투자 비중은 27.3%(162.9조원)이며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지역을 다양화하고 있음
 - 또한 동기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비중은 37.8%(225.5조원)으로 이 중 주식 및 대체투자의 위탁운용 규모는 각각 121.5조원, 56.6조원이며, 해외 주식 및 대체투자의 대부분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통해 위탁 운용 중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이 자산운용사의 수익 창출로 이어져야 할 것임

선임연구원 박신애